

금요 양성 2026년 8월 28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.

우리가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자신을 생각할 때, 머리속에 떠올라야 하는 특징중의 하나가 **우리는 늘 환영하는 사람들**이라는 것이다. 재속프란치스코회 행사나 형제회 모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드물며 놀라운 일이다.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. 언제나 그런 것처럼 방향 제시를 위해 회칙과 회헌으로 돌아가 알아보자.

회칙 13조. 성부께서 수많은 형제들의 만이이신 성자의 모습을 각 사람 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, 회원도 **모든 사람을 주님의 선물이자 그리스도의 모상으로, 겸손하고 인간답게 받아들일 것이다.** 회원은 **형제애의 정신**으로 모든 사람들,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

회헌 18조 2항. 회원은 **보편적 형제애의 참된 기초를 심화시키고, 어디서나 환대의 정신과 형제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며,** 모든 형태의 착취, 차별, 소외 및 다른이들에 대한 갖가지의 무관심한 행동을 반대할 것이다.

회칙 19조. 회원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평화를 끊임없이 건설해야 함을 기억하여,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, 대화를 통해서 **일치와 형제적 화합**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. 회원은 완전한 기쁨의 선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**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.**

회헌26조 2항. 형제회안에서 회원은 **상호간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모임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나간다.** 회원은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.

+++++

여기에 평의회와 모든 재속프란치스칸들을 위한 몇가지 조언을 제시한다. 각자가 다른 조언을 추가할 수 있다.

- 환대의 정신은 누군가가 모임 장소에 오기전에 시작된다. **평의회 회원들간의 관계**는 형제회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. 특히 단위형제회에서 그러하다. 그들은 회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된다.
- **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.**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어 기쁘는가? 그들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? 우리가 형제회 (가족)이라는 것을 기억하라. 한 달에 한번 모이는 월례회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다.
- **준비해 놓는다.** 평의회 (또는 준비 위원회)는 일찍 도착해야 한다. 다른 회원들이 도착할 때 급하게 서두르는 준비는 없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, 그들이 도착할 때 **회원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**이 없게 된다.
- **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회의실을 정돈한다.**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가? 서로를 들을 수 있는가? 참가자가 회의 진행자,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나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을 들을 수 있는가?
- 프리젠테이션 전 후에 **나눔을 할 기회**가 있어야 한다.

- 모든 사람에게, 평의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주어, **형제회의 일을 도울 수 있는**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. 형제회원들은 형제회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**“주인의식”**을 느끼고 싶어한다.
- **영속 양성은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** 그들의 이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. **“집단적인 지혜”** 토론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도우며 평의회가 회원들의 관심 영역을 아는데 도움을 준다.
- **큰 모임(지구나 국가 형제회 수준)에서 - 평의회원이 돌아다니면서** 다른 그룹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모든이에게 이로운 일이다. 단위형제회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물어 보라. 지난번 뉴스레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라... 형제적인 “가벼운 대화”를 해 보라. 평의회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요한 사안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.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다.
- 만약 **당신이** 큰 모임이나 작은 모임에서 **더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** 어떻게 해야 할까?
- 그것이 당신이 소속된 형제회라면, 어떤 사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의회원에게 질문해 볼 수 있다.
-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이 **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함으로써**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. 당신은 자신의 형제회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. 그들의 가족이 어떤지 등등.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. **돌아다니고, 새로운 사람곁에 앉아라.**
- 형제 자매들이 흥미거리에 관심을 가지며, **친교시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.**
- 큰 모임 (지구나 국가급) 에서는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혹은 집단으로 참석할 수 있다. 아마 그중의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함께 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. 혼자 참석했으면,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고. **돌아 다니며 자신을 소개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라.** 프란치스칸들이 얼마나 환영을 잘 하는지에 놀랄 것이다.

형제회나 파트너와의 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해

- + 당신의 형제회는 어떻게 “환영 분위기”를 제공합니까?
- + 프란치스칸 모임에서 “환영받지 못했다”고 느낀 적이 있나요?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였나요?
- + 자신의 형제회안에서의 환영 분위기에 첨가할 것이 있나요?